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⑪ 여래수량품 제16

부처님 세계, 중생 세계

원래 이 세상은 부처님이 보는 세계나 중생이 보는 세계나 어디까지나 절대 평등하여 똑같은 세계이지만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큰불이 나서 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지만, 부처님의 세계는 언제나 안온하여 천신과 인간들이 넘쳐흐르며 수많은 놀이동산과 아름다운 누각에다 보배로 이룩된 산과 들에는 나무마다 꽃과 열매 무성하여 중생들이 놀며 즐긴다. 천신들은 북을 치며 갖가지 음악 연주하고 만다라꽃비 내려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뿌린다. 나(부처님)의 정토는 항상 이와 같이 허물어지지 않건만 중생들은 불에 타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괴로움에 가득 차 있다(我此土安穩 天人常充滿 園林諸堂閣 種種寶莊嚴 寶樹多華果 衆生所遊樂 諸天擊天鼓 常作衆伎樂 雨曼陀羅華 散佛及大衆 我淨土不毁 而衆見燒盡 憂怖諸苦惱 如是悉充滿)"고 '여래수량품'은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는 허공법회(虛空法會)에서 본불(本佛)인 구원실상의 부처님('眞理')께서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사람 등 다섯 갈래의 마음을 모두 없애고 오직 향상된 마음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설한 것이다. 예로부터 〈법화경〉을 설한 장소는 두 곳이며 법회는 세 번 열렸다 하여 2처3회(二處三會), 즉 2막3장(二幕三場)이라 한다. 그 세 번의 법회 가운데 두번째의 법회가 이 허공법회인데 인간의 마음을 공, 즉 제일의공(第一義空)의 세계로 끌어올렸음을 비유하여 허공이라 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허공이란 '없다' 또는 '허망'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일체 만법이 실체가 없는 공성임을 아는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 이하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면 이 〈법화경〉을 설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을 아는 경지로 끌어올린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衆生心')속에는 진여심(眞如心)과 염심(染心)이 평등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오직 하나 뿐이며 둘이 동시에 표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하나라는 것은 생각이 하나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을 연으로 하느냐에 따라 정(淨)과 염(染)의 행이 생기므로 의상대사는 〈법성게〉에서 "불수자성수연성(不守自性隨緣成)"이라 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반야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이 허공법회이다. 이렇게 허공법회에 동참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공의 경지에 사무쳐 해탈을 하였고 동시에 너와 내가 본래 하나임을 알았다는 말이다. 부처님은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극락정토이며 너희들('衆生')이 착각('顚倒')된 눈으로 보는 세계는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즉 극락과 지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즉(相卽)된 것인데 그 어느 한쪽만 보고 지옥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올바로 보지('正見') 못하고 삿되게 보는('邪見') 것이니 중도(中道)로서 보면 나('佛')와 같이 실상을 볼 수 있다. 즉 빛이 부처이고 부처가 빛인 것이다. 깨친 사람의 눈에는 현실 그 자체가 모두 빛('光明')이니 이 세상이 극락정토인데 어디에서 극락을 구하려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부처님은 3계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고 죽고 하여 기필코 변화하는 것이나, 그것은 현상 위에서 만 분의 일에 불과하며 여래의 눈으로 그 속에 있는 실상(불변의 진리, 즉 마음)을 보면 모든 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그대로 살아있을 뿐 이 세상에 있다든지 혹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본래 없으므로 눈앞의 사물이 실제로 있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며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또 사물이 항상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생각함도 미혹이지만, 그렇다고 현상만 보고 상주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함도 얕은 소견이다. 여래는 3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그와 같은 생각을 초월해 그 속에 있는 실상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잘못 보는 일이 없다. 일체의 현상('事物')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지만, 깨치지 못한 중생은 저마다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제각기 다른 욕망, 자기의 주관에 의해 분별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항상 이렇게 착각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진리('佛')는 항상 이 세상에 있으면서 방편을 가지고 교화를 계속해 왔다. 이와 같이 진리는 항상 이 우주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존재해 왔고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어 없어('滅')지는 일은 없다. 결론적으로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진리는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樂')이며 진리는 부처님('我')이며 진리는 청정1심('淨')이며 조화('寂滅')된, 즉 평등한 모습인 것이다.

무설정사 조실

깨친 사람엔 현세가 극락정토
일체의 현상 마음이 만든 허상

바른 마음·생각·

가까

벽봉스

팔순의 나이에도 불구
은 무더웠지만, 팔공산
모스가 가을을 예감하게
기자가 찾아간 시간,
에서 참깨 대궁을 다듬
사실, 벽봉 스님을 뵙
에 앞서 찾아가겠다고
하러 와, 나이 팔십 먹
할말이 없다"하며 매섭
조른 끝에야 겨우, "그러
기 때문이다. 그때 무심
를 뚝 끊으신 벽봉 스님

◇벽봉스님은 세수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밭에 나가 일을 하신다. '일'은 스님의 수행방편이자 건강비결이다.

예상과 달리 반갑게 맞아주신 벽봉 스님에게서 시골 할아버지 같은 푸근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심한 벽봉 스님의 말투는 솔직한 성격과 마음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었다.

"스님, 깨가 얼마나 나오나요?" 기자가 물었다.

"뭐, 절에서 먹을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절반이나 될는지 모르겠다."

지난 번 장마 때 절 앞의 참깨 들깨 밭에 무릎 넘어까지 물이 차서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많이 줄었단다. 깨 밭을 둘러보며 벽봉 스님은 "저기 봐, 저 바닥에 허옇게 깨들이 떨어졌는데도 삐뚤새도 와서 안 쪼아 먹는다. 물에 잠겼다 나온 거라 그런지, 고놈들도 웃긴다 아이가, 저거들이라도 먹었으면 좋으련만. 어찌나 아까운지…."

벽봉 스님은 비둘기를 '삐뚤새'라고 하신다. 처음엔 그게 뭔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한참 뒤에야 절 마당에 앉아 있는 비둘기를 보고서 삐뚤새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벽봉 스님은 청력이 좀 떨어진 것 외에는 세수 8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 스님의 건강 비결은 바로 '열심히 일 하는 것'.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4시에 법당에서 예불하고, 밭에 나가 일하다가 아침 공양하고, 일하다가 점심 공양하고, 또 일하다가 저녁 예불하고, 저녁 공양을 마치고 하루 일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든다. 이것이 스님의 일과다. 가끔 피곤할 때는 낮잠도 주무신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간을 밭에서 산에서 일을 하며 보낸다. 대원사 앞 텃밭의 참깨, 들깨를 비롯해 옥수수, 고추, 파, 감자 등은 모두 벽봉 스님이 가꾸는 것들이다. 또 장마로 넘어진 뒷산의 나무들도 손수 일으켜 세우고, 베어내야 할 것들은 베어내며 정리한다. 아침 저녁 법당 예불 시간과 하루 세끼 공양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밭에서 일을 하며 생활하는 벽봉스님.

"중이 아침 저녁 부처님께 절 하는 게 제 할 일인데, 당연히 해야지, 안그렇나?" 아직도 직접 예불하시냐는 물음에 스님은 이렇게 답하신다. 벽봉 스님은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신다. 밭작물을 다 거둬들인 후 겨울에는 땅을 파서 내년 농사를 대비하신다니,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선사의 가르침을 평생 화두로 삼아 온 스님은 일과 수행, 기도와 정진이 모두 하나라고 믿는다. 그래서 당신스스로 일하는 시간, 예불 하는 시간을 구별하지도 않는다. 그저 평생 해 왔던 그대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대하고, 순리대로 처리한다. 가끔은 힘든 일도 생기지만, 그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고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수순히 받아들이면, 또 그런대로 어렵다 힘들다 생각했던 일들도 풀려나간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요, 대부분의 불자들이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곤 하는데, 어디 기도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요? 불자의 삶은 그 자체가 기도이고, 수행이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필요 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편리한 사고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불자라고 할 자격도 없는 것이야."

벽봉 스님이 조실로 계신 경북 칠곡 송림사 종무소의 서혜지씨는 스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스님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매일 매일 일을 하시면서도, 가끔 할일이 없는 날에는 개울 건너 남의 밭일 까지 하십니다. 한마디로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를 않으시예. 보통 큰 스님들 하면 절에서 근엄하게 계시다가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가끔 법문하시고 그러시는데, 스님은 다릅니다. 대원사도 누가 지켜도 지켜야 한다면서 송림사에 계시다가 몇 해 전에 가셨습니다."

스님은 절약하고 아끼며, 수행자로서의 최소한의 것들만을 취하신다. 세수를 할 때도 세수대에 물을 3분의 1만 채우고, 비누는 쓰지 않는다. 또 세수한 물에 양말을 빨아 널고, 다 사용한 물은 모았다가 밭에 갔다 뿌린다. 신도들이 양말이며, 속옷을 비누로 깨끗이 세탁해 드리겠다 해도 "또 나가 일하면 금방 땀내 나는데 뭐 할라고"하며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가끔은 신도들이 스님 몰래 가져다 빨았다가 제자리에 갔다 놓기도 한다.

실상 직시하지 못하고
기대·환상속에 빠져
항상 번뇌 끊이지 않아

오래 입어 다 떨어진 작업복도 못 버리게 하고, 양말이나 속옷도 다 해어져 떨어지면 신도들이 시장에서 사다주는 몇 천원 짜리로만 겨우 입는다. 서씨는 "한마디로 당신을 위한 투자는 전혀 안하십니다. 다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지예. 그리고 건강하시니까 보약 같은 거 잡수실 일도 없고예. 그저 일하고, 기도하고, 불사하는 거 밖에 모르십니다."

말없이 온몸으로 무소유를 실천하며, 불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벽봉 스님. 지난달에는 대구 동화사 백고좌 법회에서 '지장경'에 대한 법문도 하셨다

◇절 앞마당 종각터에 세워둔 참

또 다른 절에서는 법문 안하시냐고 여쭈었더니, "솔직히 내는 잘하는 법문이 아니다. 내 말고도 얼마나 법문 잘하는 스님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여기저기 가서 법문하고 했지만은 요즘은 그나마도 안한다. 그리고 와서 법문 해달라는 데도 별로 없다. 동화사는 내 상좌가 있는 절이라 가서 했지, 내 앞 가림 하기도 시실은 힘에 부친다."

그래도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침을 달라고 하였다.

"바른 마음·바른 생각·바른 행동으로 정진하는 것, 이것 말고 또 무슨 가르침이 더

2002학년도 후학기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직장인을 위한 야간대학

- 교계 최초로 1972년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법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 과정임(30년 전통 2000여 동문 졸업 및 500여 법사 배출) -

- 강의시간 2002년 8월 26일 개강 주 4일 출석(월화수목), 필수 : 5과목, 선택 : 2과목 강의(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김종욱(동국대)
- 불교의식실수 특별초빙교수 마일운스님(범패전승자)
- 교육과목 【※2년간 불교의식 실수 및 동·하계 수련회[2박 3일] 개최】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연대불교윤리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 선사상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원전강독 · 불교와 철학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우리말불교의식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불교학 통신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불교 대학과정 졸업자(2학년 편입)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편입생에 한함)	- 편입생은 2학년과정으로 입학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9월 7일까지(토요일) 본 대학 교무과(수시모집)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성적우수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 754-1613, 773-9171, 776-7156 FAX : (02)756-7258
Homepage : www.idaewon.or.kr

제3기 **선(禪) 심리치료사 양성 및 심화과정모집**

⊙ 선 심리치료사란?
물질 정보문화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하지만 참나를 잊고 혼돈속에서 방황하며, 도덕 불감증과 각종 공해로 인한 스트레스(번뇌)와 불안심리 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신심리요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정신심리요법 중에서 선 수행과 불교적 소양, 정신분석학, 동양의학, 심리학, 대체의학 등의 전문지식을 연구하여 인간 심층심리에 잔류하고 있는 불안정한 음성적인 에너지를 없애고 마음의 세계를 안정시켜 스스로 참나를 찾아서 자유·평등·평화로움을 갖게 하는 최상의 무아심리치료의 장을 열려는 불교적 노력을 선 심리치료라 하고 이 무아심리요법 전문가를 「선 심리치료사」라 정의한다.

⊙ 주요 교과
▸불교학
▸선 심리치료학
▸무아선무요법
▸참나찾기 특수프로그램
▸금강경, 능엄경의 정신분석 심리치료
▸영혼 심리학
▸통찰심리치료
▸예술심리치료법
▸유식과 심리치료

⊙ 교과 일정(일반과정)

과 정	요 일	시 간	기 간
양 성	목요일	10:00~12:00	9월 26일 ~ 2003년 1월 23일
심 화	금요일	10:00~12:00	9월 13일 ~ 2003년 2월 21일

⊙ 주요 강사진
이 법 산 : 동국대학교 정각원장, 한국선학회 회장
박 운 곡 : 동방불교대학 교수,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
백 상 창 : 백상창 정신과 원장, 통찰심리치료 전문의
김 관 화 : 아세아 신학대학교 총장
장 태 수 : 한국사회복지대학교 총장
최 수 영 : 미 조지타운대학 심리학 박사
성 상 현 : 법화경, 수능엄경, 육조단경 암송법사
주 명 철 : 동국대학교 교수
김 도 각 :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원장

⊙ 입학자격
불교연구자, 상담사, 포교사, 교사, 교수, 의사,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학부모, 기타(성직자 등)
(단, 심화과정은 양성과정 졸업자에 한함.)

⊙ 졸업자 영분 분석
▸성직자 : 11명
▸교사·교수 : 3명
▸의사·한의사 : 3명
▸포교사 : 30명
▸침·뜸·동의학연구자 : 4명
▸사회복지사 : 4명
▸간호사 : 4명
▸상담종사자 : 2명
▸경영진단사 : 1명
▸기타 : 20명
▸청소년지도사 : 1명

⊙ 특 전
① 선 심리치료사 자격증 수여
② 마음의 전화 개설시 자료 제공
③ 참나찾기 지도자 팔관재 큰 모임 참가 자격
(문화관광부 후원 선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17회 개최하였음.)

⊙ 수강신청
2002년 9월 24일(통신교육도 가능함)

⊙ 문의 및 수강신청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TEL : (02)738-1275(심리치료),
(02)326-0248~9(F)
H·P : 016-301-4080

사단법인 **참나찾기 청소년지도자협회**
부 설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마 음 의 전 화